

사설

다시 첫 마음으로

우리의 화두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이 땅의 불교 정토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삶속의 불교위한 8년

8개성상.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마처럼 달려왔습니다. 사회병리현상, 인간소외, 생태계파괴, 사찰환경파괴, 생명윤리 등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제반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향해 역시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간 8주년을 맞이하는 본지의 각오는 새롭기만 합니다.

창간 8주년을 맞이하는 본지의 각오는 새롭기만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그 특성이듯 불교계에도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불교인문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면을 새롭게 구성하고 증면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승단, 행정, 시사,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수행, 수행, 생활, 문화, 또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보고 난 뒤에도 주위에 적극 권유하는 돌려보는 신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 대응 새 출발

제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적 내지는 실용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 주간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깊이 있는 해설과 실행안, 다양한 정보의 수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면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정과 도전정신은 지니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적 사명감 속에서 한국불교문화의 도약과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불교문화 창달에 신기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독자 제현의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창간 8주년에 즈음한 저희들의 각오를 전하고자 합니다.

법계구분 휘장 내년부터 착용

조계종법계위 확정 여섯 색상 구별...반대여론 만만찮아

대종사=황금색
중사=청색
중덕=황색
대덕=적색
중덕=녹색
견덕=가사색

조계종 스님들이 가사에 법계(法階)를 구분한 휘장(표식)을 착용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9월2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보성)에서 확정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앞으로 스님들은 여섯 가지 색상에 백동을 소재로 한 소형 휴대폰 크기의 타원형 휘장을 부착해야 한다.

가장 낮은 법계인 견덕(4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10년 미만의 휘장은 가사색, 중덕(3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10년 이상은 녹색, 대덕(2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20년 이상)은 적색, 중덕(1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25년 이상)은 황색, 중사(중덕법계 수지자, 법랍 30년 이상)는 청색, 대종사(중사법계 수지자, 법랍 45년 이상)는 황금색이다.



가사에 휘장을 착용한 모습은 법계명칭을 한글로 새겨 넣기로 했으며, 다만 중덕의 황색은 대

종사의 황금색과 유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사도 법계에 따라 조수를 달리해 착용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법계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견덕은 7조, 중덕은 9조, 대덕은 15조, 중덕은 19조, 중사는 21조, 대종사는 25조 가사를 착용하게 된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한 눈에 어떤 급의 스님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이렇게 될 경우 비구계만 받은 큰 스님(가이) 되는 현재의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휘장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

이 만만치 않다. 율원과 선원은 물론이고 강원에서도 반대여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일부 중회의 원과 지방 사찰의 주지, 재가불자들이 역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휘장 착용에 반대하는 이유를 종합하면 스님들이 과연 휘장을 착용하고 다니겠는가 △일반인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비쳐질 것이다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야만 승가질서가 잡히는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의제실무연구회는 이같은 논리를 반박한다. 2000년 8월 스님과 학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법계에 맞는 의제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법계를 구분하는 데는 휘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휘장 착용과 관련한 객관적이고도 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명우 기자

13대 중앙종회의원 31일 선출

조계종 선관위, 21~23일 입후보자 등록 11월6일 결과 공고

조계종 제13대 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직선직 중앙(교구)종회의원 선거가 10월 31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10월 27일 선출된다.

일정에 따르면, 10월1일 선거공고 이후 10월2일부터 8일까지 거주승 신고를 해야 하며, 10월 21~23일 3일간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및 직능대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0월25일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마감이 이뤄지며, 27일에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가 소집돼 20명의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한다. 이날은 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도 함께 진행되며, 28일 직능대표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된다.

10월31일 오후 1시부터는 24개 교구에서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며, 11월6일 선거결과가 공고된다.

6일 조계사 대웅전 해체 고불식 봉행

창건 92주년기념 경내서 사진展도

조계사 대웅전의 해체보수 불사가 오는 6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최근 일주문 건립 기반 공사와 가람확대 등의 불사를 벌이고 있는 조계사(주지 지홍)는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조계사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고불식을 봉행하기로 했다.

창건 전후의 모습, 도심 속에서 수행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조계사의 최근 모습 등 다양한 사진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주지 지홍 스님은 "열린 사찰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대웅전 해체불사 고불식과 사진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 불자들은 물론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하는 쉼터 공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전을 연다. 19~27일 조계사 경내에서 마련되는 사진전에는 김철우 기자

Advertisement for '현대' 만평 (Modern Cartoons) by Kim Myung-min.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two figures carrying baskets and the text '한·베트남, 함께 세계로...' (Korea and Vietnam, together to the world...).

'회당사상과 밀교' 국제학술대회

진각종,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진각종이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동아시아 밀교사상사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17~18일 이틀간 서울 성북구 동리원에서 연다.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이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 국제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회당사상과 밀교'로, 국내 학자 13명과 해외 학자 4명 등 총 17명의 불교학자들이 참가하게 될 이 학술대회는 △회당사상과 종교적 실천 △밀교의 성립과 전개 등의 분과와 각 분과별 4~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17일에 열리는 분과에서는 '회당사상의 체계와 특성', '회당의 수행과 실천' 등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 18일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手印)에 대한 사례 연구', '티베트의 밀교수행과 만다라' 등 5개의 소주제가 발표된다. (02)913-0133 김철우 기자

Advertisement for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Modern Buddhism: Living, Modernizing, Globalizing). It lists the publisher as '노대행'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ditorial board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02 International Buddhist Conference' (2002년 한국·중국·일본 국제 무차 禪 대법회). It features the title '21세기 禪으로써 인간성 회복' (Recovery of Humanity through Zen in the 21st Century) and lists speake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It includes a map of the venue at Haeundae Seonjeongsa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gistration.